

## “ 겸손의 길 ”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과 순종의 덕성으로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순종은 어려운 일이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굴종이나 위선이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험난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길이다.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닦으신 주님의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그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한 이들이 질투하며 다투었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겸손은 섬김에 우선된다. 어린아이나 노예처럼 낮아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다. 우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네 개의 짐을 던져버려야 남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

**첫째, 교만의 짐(the burden of pride)을 던져 버려라.** 겸손은 교만의 반대어다. 우리를 공격해 온 사람에게 우리의 교만한 반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자신을 작은 양으로 여기고 자신을 우상처럼 왕처럼 처신하고 대해주기를 바라지 않았던가. 자기를 비방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은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교만의 탈을 벗어버릴 때 가능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람 앞에 큰 자로 설 수가 있었다.

**둘째, 위선의 짐(the burden of pretense)을 벗어버려라.**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있는 것을 숨기려 하는 위선의 짐을 버려야 겸손해진다. 사업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처럼 우쭐거리며 행세하려거나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 지식은 짧고 경험도 미천한 이가 더 많은 교육과 경륜을 쌓은 이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 한다면 꼴불견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인이 못되었으면서 문화인 인척 외모를 꾸미고 행세를 하려는 위선자는 겸손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진실이 없고 빈수레처럼 잡소리만 낸다. 자신이 실제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장을 한다. 자신이 정보에 어둡고, 신앙생활 철학도 없는 미숙한 사람, 세련되지 못한 사람 취급받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문제는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우리는 부패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안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한다고 핑계를 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주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참회하고 부복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 죄는 다른 사람 앞에 죄를 감추고 목을 곧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올 때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식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될 것이다.

**셋째, 인위적인 짐(the burden of artificiality)을 벗었던지라.** 외식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강한 체하는 진실이 결여된 이예겐 겸손이 없다. 인위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한다. 십자가는 사실이다. 잘못된 것을 경직하게 시인하고 속이는 것과 악은 소멸되어야 한다. 진리 앞에 겸손하고 사실 앞에 경직해야 한다.

**넷째, 자기 성취를 위한 투쟁의 짐(the burden of self-struggle)을 벗어버려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인정받기 위해 자신과 투쟁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만에서 흘러나온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과는 다르다. 자기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야 겸손해진다. 교만, 위선, 인위적 꾸밈, 자기 성취욕에서 벗어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시작할 때 따르기 어려운 겸손의 길을 예수님처럼 걷게 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344호] 2012년 11월 17일 발췌-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의 4부 예배 형태를 온라인예배와 함께 병행하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1부와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이전처럼 시작 5분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c/서울교회공식유튜브>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 서울교회 당회 드림

홍해작전 새벽기도회가 오는 17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5시30분부터 아래 보내드리는 공동기도제목과 부목사님들의 영상 설교말씀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작 5분 전부터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도 각 처소에서 코로나19 안정과 교회관련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앞에 놓여진 홍해를 넉넉히 건널 수 있기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특별새벽기도회는 서창원 목사님 설교로 새벽 5시부터 주력교구로 배정된 성도들은 직접 교회에서, 다른 교구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 2020 홍해작전 본부 드림

\*2020홍해작전공동기도제목 :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RS\\_PCARD.jpg](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RS_PCARD.jpg)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b>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b> ② <b>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b> ③ <b>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b>	<b>서울교회QR코드</b> 
--------------------------------	--	--

<b>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b>		
<b>전도사</b> 박미라	<b>교육전도사</b> 김은숙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b>선 교 사</b> 전광해(사모사),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한주(가호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사형정(러시아), 허창범한마순(일본), 김낙형 오정녀(케냐, 김종일박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버로이, 필리몬, 프란소프, 수레시, 수버섯, 알로토, 비사누밴도, 보다소프, 린롬, 수원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일(말리우), 이재을박정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미디카르키)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장로회</b> <b>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a href="http://www.iseoulchurch.or.kr/">http://www.iseoulchurch.or.kr/</a>

## “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

### ■ 고전 2:6-10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죄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들의 지혜를 말하지 않고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 1.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11절). 숨겨진 지혜를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놓았다는 것은 언젠가는 밝히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숨겨졌던 비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주님, 곧 이 세상의 없어질 지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시대를 읽어나야 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선포를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해야 할 자들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영적인 위로와 각성보다는 육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욕되게 하는 것이고, 듣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 음부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 2. 우리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감춰졌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 증거를 받는 자들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그 비밀을 듣는 자들이 깨닫는 것은 그 비밀의 소유권자인 하나님의 권위만을 놓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수용하는 자들을 영화로운 자들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을 알려주셨는지,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이것은 오직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별레만도 못한 자요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요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를 대적하는 일에 능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는 죄악으로 가득찬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묵상하며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 3.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케 한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이 함께 만나는 곳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 맺는 말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비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길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할 일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할 대 사명입니다. 이 대 사명은 단지 12제자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별레만도 못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경험했던 옛 적 일들은 다 지워버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이관규 장로
IV 오후 4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출 19:5-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시19)...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401(45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2:11-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세상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459(51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최종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IV 부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62:1-2 ..... 인 도 자  
 찬 송 ..... 73(73)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 창 16:4-14 ..... 인 도 자  
 설 교 ..... “브엘라헤로이” ..... 인터넷 영상  
 찬 송 ..... 539(483) ..... 다 함 께  
 주기도 ..... 다 함 께

## 수요예배

### (개 인 기 도)

### 홍해작전 새벽기도회 (인터넷 영상) 6월15일(월) - 17일(수)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6월18일(목) - 20일(토)

오전 5시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서창원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알 림

####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11. 이번주 심방 일정

2-1. 4-2, 5-2, 16-3다락방

### ☛ 결 혼

#### 1. 오주명 군(9교구 나기태 권사의 장남)과 이지현 양(이하형 성도, 채정희 집사의 장녀) /

6월20일(토) 오후 3시30분 H스퀘어(한양대 동문회관) 6층 헤리티지홀(02-2299-9999) / 2호선 한양대역 1번 출구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 1,2,3,4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432명	340명	1,772명	2,309명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6/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7일	헌 금	32,607,280	
	찬양운영비		1,000,000
	성 레 비		180,000
	선 교 비		200,000
	행 사 비		1,090,000
	출 판 비		210,000
	복리후생비		137,550
	통 신 비		1,025,030
	차량유지비		435,300
	소모품비		603,200
	환경유지비		121,600
	수선유지비		547,000
	잡 비		6,500,000
	식당운영비		461,610
	합 계	32,607,280	12,511,290

##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